

생기원은 현재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4개 해외거점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해외거점들의 주요 미션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는 생기원, 그 첫 번째, 베트남 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본다.



박준호 소장에게 듣는 베트남 사무소 이야기

베트남 호치민의 ‘사랑방’이자 중소·중견기업의 언제나 든든한 벗으로

1. 베트남 사무소의 비전 및 역할이 궁금합니다.

현재 생기원은 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 성격이 다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미션은 동일할 것입니다. 먼저 해당 국가와의 과학 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이 한 축을 이루고,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의 기술지원이 또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경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해외에 있는 현지 기업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기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연구기관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수급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량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3대 교역국으로 떠올랐죠.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사들인 물자만 하더라도 140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원부자재를 가져가고, 베트남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다시 한국 시장으로, 또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한 혜택은 곧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트남 현지에서 생기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베트남 사무소에서의 현장 기술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아무래도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더욱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에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연구소이자 전 산업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생기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